

얼음 깨기

최고의 선택

교회행사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 와 D 사이의 C 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Birth) 순간부터 죽음(Death)까지 언제나 선택(Choice)의 연속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목장모임에 참여하는 것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선택 가운데 자신이 했던 최고의 선택을 꼽으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또 최악의 선택을 한 것으로는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1. 지금까지 인생에서 나에게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2.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나에게 최악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6월

- 8-9일 더함 공동체 수련회
- 9일 어와나 1학기 종강
- 16일 더가족세미나(4주간)
- 21-22일 유학생 수련회
- 28-30일 더원 공동체 수련회

7월

- 7일 더가족세미나 종강
- 13-14일 더존이유아유치부여름성경학교
- 20-21일 초등1,2,3부 여름성경학교
- 26-29일 중등,고등부 수련회

경배 찬양

약한나로 강하게

1.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2. 내가 건너야 할 땅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3.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선교

[전준선 선교사]

나미비아

1. 나미비아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2. 나미비아 치안과 경제가 안정되도록
3. 에로스 여중, 고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되어 주시고 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4. 나미비아 선교사역에 함께 동역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도록

교회 소식

한문장 큰 올림

1. 남전도회 체육대회 공동체 안의 돌아보아야 할 지체와 마음을 함께하기 위한 남전도회 체육대회(배구,족구)를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일시: 6월 22일(토) 08:40~13:00, 종료 후 점심 식사
-장소: 신흥 중학교/ 신흥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문의: 유신 집사(010-7400-9996)
2. 목적헌금 더온누리 가족이나 주변 이웃, 선교사님을 위해 성령께서 특별히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를 “목적헌금”이라는 통로를 통해 성경의 원리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3. 수요예배 찬양대 찬양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하신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고영숙 전도사)

죄는 자기 부인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
즉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 존 블룸 -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행 21:13-14)

바울은 고별설교를 마치고 밀레도에서 두로(1-6절), 두로에서 가이사라까지(7-9절) 각 지역의 형제들을 섬기며 예루살렘으로 나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실제로 죽고 부활하지는 않았으나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항해에서 죽음과 같은 시련을 겪습니다. 증인의 길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여행입니다(행 21:14).

1. 밀레도에서 두로까지(1~6절) 바울은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작별하고 고스와 로도를 거쳐 바다라에 이르고 거기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 두로에 도착합니다(1~3절). 이동 중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틈을 내어 형제들을 만나 교제하고 어디를 가든지 수소문하여 제자들을 찾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들을 굳게 세웁니다(1~4절). 바울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적인 사람들로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형제들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들은 짧은 교제후 간절한 마음으로 성문 밖까지 나와 기도하며 바울 일행을 떠나 보냅니다.

[질문] 바울 여행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제하고 권하고 돌봐 세우는 것이 여행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바울처럼 이 여름 시간을 내어 찾아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나요?

2. 두로에서 가이사라까지(7~12절) 두로를 떠난 선교팀은 돌레마이에를 거쳐 가이사라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네 명의 딸 네 명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모두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선교팀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온 아가보는 바울의 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유대인들이 띠의 소유자를 결박하고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11절). 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재판받기 위해 구금을 당합니다(21:27, 30, 33). 아가보의 생생한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12절). 단순히 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끈질기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간구합니다. 형제를 향한 진실하고도 애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뻔히 알고 있고 모두가 말리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질문] 지체의 아픔 때문에 나도 간절하게 아파본 경험이 있나요? 함께 아파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3. 고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13~16절)

바울은 모인 사람들이 울면서 호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13절).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것도 각오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결심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성령을 통해 일어날 일을 알게 되더라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때로는 본문처럼 성령이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도록 할 때 제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을 염려하는 형제들의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졌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이기에 바울의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둘째, 성령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는 다양성과 일치성이 나타납니다. 동료들은 반복되는 예언으로 최대한 바울을 설득하지만 끝내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바울의 결심을 존중합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도 성령의 뜻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핍박받겠다는 바울의 결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합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결정을 주의 뜻으로 인정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 개인에 내주하심에 따라 저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는 가야 할 방향이 하나로 결정되었다면, 한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에만 몰두하여 고난의 길을 가려는 자의 결정을 무시하고 외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힘든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와 함께 성령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주의 뜻 때문에 고난이란 길을 통과해본 경험이 있나요?

[질문] 주변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 힘든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눔 주일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 사도행전 21:1-16]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바른 지식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바른 믿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소서.
	바른 행함	위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